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영국 생보업계, 재편 가능성 제기

□ 영국 보험회사 Friends Provident(이하 Provident)는 8월 11일 대형 보험그룹인 Resolution의 18억 6천만 파운드(약 31억 달러) 인수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힘.

- 이미 두 차례 인수를 거절한 바 있는 Provident는 Resolution의 수정 인수 제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며, 오는 10월말 까지 모든 절차를 끝낼 것이라고 밝힘.
- Friends Provident는 1주당 0.9주의 Resolution 주식 교환이 이전 제안인 1.0 : 0.8보다 12.5% 개선된 것으로 파악함.
- 또한 Provident의 주주에게 5억 파운드 규모의 주식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옵션 조건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.
- Resolution의 이러한 공격적인 조건 제시는 지난 12월의 기업공개를 통해 6억 파운드가 조달되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.

★ Resolution은 GE의 유럽지역 보험부문 前 CEO인 Clive Cowdery에 의해 설립되었으며, 177년의 역사를 지닌 Provident는 2001년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된 바 있음.

□ 그동안 Resolution의 인수 제의를 거부한 Provident가 전격적으로 동의한 직접적인 원인은 상반기 실적 악화(38% 감소)로 분석됨.

- Provident는 디폴트 대비 유보자금인 1억 4천만 파운드를 삭감하여 2009년 전체 실적을 개선할 여지를 마련하였으나,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였음.
- 또한 보수적인 경영전략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1주당 1.3펜스의 배당금 지급은 주가 하락 억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.
- Friends Provident는 그동안 영국경제 침체로 인해 신규 보험영업 부문이 위축되고, 기존의 단체 연기금 부문이 축소된 것으로 파악됨.

□ Resolution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생명보험시장과 자산관리부문의 구조조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, 추가적인 인수 의향이 있다고 내비쳐 향후 영국 생보업계의 재편 가능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.

- Resolution은 50~70억 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향후 3~4개의 영국 생보사를 추가로 인수 · 합병할 계획이라고 밝힘.
- 잠재 인수 대상으로는 약 9개의 생명보험사를 고려한다고 발표함.

(Financial Times, The New York Times, 8/12)